

흔들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전 ‘가족’이라는 이름

질풍같은 용기로 다시 한번 더 큰 꿈을 꾸는 KIA 고종욱

팬들의 응원·선배 최형우 조언,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원동력 ‘함평 타이거즈’ 중심, 여름의 반등을 기억, 팀에 보탬되고 싶어 ‘아빠 되는 겨울’, 마음가짐 재정비…믿음주는 선수로 거듭날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야수 고종욱에게 2025년은 여러 감정이 교차한 해였다. 팀도, 개인도 아쉬움이 남았고 컨디션 이탈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짊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시즌보다 따뜻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곧 ‘아빠’가 되기 때문이다. “12월1일 예정일이예요. 팔입니다” 그는 씩씩워하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지난 2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고종욱은 비시즌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올해를 돌아보면 남아 있는 감정은 ‘책임감’이라고 했다. “작년에 1위였잖아요. 올해는 하위권으로 끝나서 모두 아쉬웠죠. 저도 끝까지 못 뛰었고, 베테랑으로서 더 책임을 느꼈어요”

아쉬움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준 순간이 있었다. 시즌 중 결승타들이 예상보다 많았고, 각각이 ‘아직 할 수 있다’는 신조처럼 다가왔다. “그 경기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런 순간들이 저를 다시 끌어올렸죠” 팬들의 응원은 고종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에너지였다. “2군 있을 때도, 여름에 잠깐 올라왔을 때도 제 유니폼 입은 팬들이 보였어요. 정말 힘이 됐어요”

만행 최형우의 조언도 오래 남았다. “형우 형이 최고참인데도 여전히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밀렸나 보다’ 싶을 때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줘요. 그런

말들이 정말 버팀목이 됐어요”

고종욱에게 팬과 선배는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존재였다.

지난해 그는 2군에 머물며 스스로의 입지를 자주 의심했다.

올해 초반 해도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솔직히 올 초엔 ‘슬슬(은퇴를) 준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기회가 왔고, 막상 올라가 보니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하고 싶은 야구를 조금 더 해보고 싶었어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부담을 내려놓은 것’이었다.

그는 데뷔 때부터 수비를 강점으로 평가받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압박으로 바뀌었다. “제가 7점이면 7.5-8점만 만들면 되는데, 예전엔 10점을 만들려고 했어요. 억지로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생각을 바꾼 뒤 플레이가 편해졌다. “감독님이 공격 쪽을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비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니 편해졌고, 플레이도 더 잘됐어요”

6월의 반등도 잊기 어렵다. ‘함평 타이거즈’라 불릴 만큼 젊은 선수들이 흐름을 이끌었고, 그 위에 본인의 활약을 자연스럽게 더해졌다. “선우가 잘했고, 호형이도 바로 올라와서 잘하고, 백업들도 힘을 내니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죠”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큰 원동력은 가족이었다.



KIA 타이거즈 외야수 고종욱이 지난 2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다.

KIA로 온 뒤 결혼했고, 올 시즌을 치르는 동안 그는 아내와 아이를 떠올릴 일이 많았다고 한다. “가족을 생각하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냥 끝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6월 LG전 승리 후 인터뷰에서 눈물이 터졌던 에피소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내가 ‘아 이도 생겼는데 한번 알려라’고 장난처럼 말했거

든요. 제가 ‘할게 할게’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인터뷰 막상 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그 동안 마음 고생도 있었고,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는 이제 곧 태어날 딸을 떠올리며 준비 중이다. 설레고, 부담되고, 책임감이 밀려온다고 했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는 제가 더 잘해야죠. 아빠가 되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것 같아요”

비시즌 계획도 이미 세워놓았다. “그동안은 웨이트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런닝 비중을 늘리려고요. 선반이랑 체중 조절 계획도 세웠어요. 선반이 식단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는 몸을 잘 만드는 게 곧 내년 성적의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고종욱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달리기가 빠르면 몸 쓰는 게 훨씬 자유로워요. 주루가 되면 기본적인 3루는 갖출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루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빠른 게 경기력에도 확실히 유리하니까요” 그에게 속도와 주루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야구를 유지하게 하는 중심이었다.

내년 팀 상황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었다. “찬호가 빠졌지만, 주전들이 올해보다 조금씩만 더 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많이 뛰어서 힘을 보태고 싶어요”

후배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남겼다. “비시즌 두세 달이 시즌 전체를 좌우하잖아요. 이번 겨울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요. 후배들이 저보다 더 좋은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팬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제가 나오면 좀 기대되는 선수였으면 해요. ‘재 나오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찬스에 강한 선수, 그게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를 요청하자 단호하게 힘을 주며 말했다. “이번 시즌 아쉬웠지만, 내년에 꼭 가을야구 할 수 있게 준비해야죠. 저도 보탬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종욱에게 올 겨울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곧 ‘아빠’가 되는 해,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다잡고 있었다. 내년, 그는 또 다른 책임감을 품은 채 필드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FC, “‘15승 목표 달성’ 축포를 쏘자”

오는 30일 수원FC와 리그 최종전

‘끝’아닌 새로운 도전의 연속
유종의 미, 코리아컵 정조준



광주FC가 K리그1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8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지난 2월15일 수원FC와의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즌을 함차게 출발한 광주는 9개월여 레이스의 종착역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상대는 수원FC다.

올 시즌 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 코리아컵까지 3개 대회를 병행하며 구단 역사에 남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광주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월6일 열리는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최종전 승리의 중요성은 크다.

현재 광주는 14승 9무 14패(승점 51)를 기록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홈 폐막전에서 골을 터뜨린 광주FC 프리드온슨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하며 지난 시즌의 승점(47점)을 이미 넘어섰다. 승수 역시 지난 시즌과 같아, 당초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이 설정한 ‘최소 15승 목표’ 달성이 눈앞에 와 있다.

광주의 최근 경기력은 상승세 그 자체다.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는 동안 단 1실점만 허용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 안정을 보여줬다. 이는 후반기 이정호 감독이 주도한 전술 시스템 개편과 훈련 프로그램 조정이 선수단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과다. 공수 밸런스가 잡히며 조직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는 이번 수원FC전을 통해 리그 15승을 달성하고 기세를 잃지 않은 채 코리아컵 결승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즌 최종전에서의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구단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는 각오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제1회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내일 광주축구전용구장…푸드트럭·이벤트 등 볼거리 풍성

프로축구 광주FC가 빛고을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연다.

광주는 2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회 광주FC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축구교실 취미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총 4개 부문, 2개 팀 약 500명이 참가해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경기 참여 외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푸드트럭을

비롯해 축구 다트·뉴스포츠 등 놀이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벤트 존, 광주FC 유소년재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가 운영돼 가족 단위 참여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가자에게는 기념 메달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특히 직접 준비한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세리머니 챌린지’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열기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광주FC 홍보대사 조빈도 방문해 포토타입 등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생활체육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지도자 전문성·역량 강화…2025 전남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

전남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약하는 지도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남도체육회는 27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컨벤션에서 전남 22개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전남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도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퍼퓸 클래스(항수 만들기 체험) ▲코칭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체험 중심·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에 참가한 정재희 목포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이번 워크숍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과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매우 유익했다”며 “퍼퓸 클래스와 코칭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27일 열린 2025 전남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에 참가한 지도자들이 퍼퓸 클래스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현장에서 활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여자 기성’ 김은지, 쉬이디와 오늘 한·중 영재 대결

한국 여자 기성에 오른 김은지(18) 9단이 중국의 바둑 영재와 실력대결에 나선다.

김은지는 28일 경남 합천군 청와대세트장에서 열리는 제13기 하천석국수배 한·중 영재대결에서 중국의 쉬이디(18) 7단과 맞붙는다.

김은지는 지난 6월 열린 하천석국수배 영재 최강전에서 우승해 한·중 영재대결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은지는 지난 25일 끝난 해성 여자기성전에서도 오정아(6단)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김은지와 동갑내기인 쉬이디는 2022년 응씨배 세계청소년바둑선수 대회와 2023년 마차오배 중국 신인왕전에서 우승했고 올해 열린 제1

회 자싱 저우란위 전국 신예바둑오픈전 남자부에서도 정상에 오른 기대주다.

한·중 영재대결에서 승리한 선수는 29일 신진서(25) 9단과 ‘영재 vs 정상’ 특별 대국을 벌인다.

한국은 물론 세계 바둑계의 1인자로 평가되는 신진서는 2015년 열린 제2회 영재최강전에서 우승한 바 있다.

신진서는 2019년부터 특별 대국을 두며 영재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13회 하천석국수배 한·중 영재대결과 영재 vs 정상 특별 대국은 시간누계(피서)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시간 20초로 진행된다.

/연합뉴스